

# 우리 음악문화와 서구주의

2009. 11. 05. (목) | 황준연(서울대)

바야흐로 세계는 글로벌화 되면서 민족적이거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세계의 각 나라는 저마다의 예술과 문화를 자랑한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통음악이 있어서 이를 해외에서 연주하면 세계인의 환호와 사랑을 받는다. 세계의 청중은 국악이 표현하는 예술성과 높은 격조에 감동하고 놀라움을 표시한다. 특히 서양음악의 본고장 독일의 음악 애호가들이 우리 전통음악에 깊이 심취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악에 별로 관심이 없다. 사람들의 국악에 대한 인식은 무관심을 지나서 거의 무지에 가깝다. 그들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을 위시하여 슈베르트, 브람스, 바그너, 등 독일계 작곡가들과 롯시니, 베르디, 푸치니 등의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들의 이름도 줄줄이 꿰고 있고, 기악곡에도 정통하며 오페라 아리아도 즐겨 부른다. 그러나 가곡 초수대업을 알지 못하고 심청가나 흥보가 한대목도 들어본 바 없다. 일반 시민은 물론 문화계 인사 중에도 서양 고전음악에 해박한 이는 많지만 우리 전통음악을 잘 아는 이는 드물다. 지식인도 국악을 잘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방송의 에프엠라디오 채널은 하루 종일 서양고전음악을 틀고 있다. 국악은 한두 시간만 방송한다. 도하의 각 신문은 시시콜콜한 서양음악 관련 기사로 문화면을 매일 도배한다. 2007-8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과 기초를 포함하는 공립전속 음악단체는 총 202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서양음악단체는 161개이고 국악단체는 41개이다. 서양음악을 연주하는 단체가 국악단체보다 무려 4배나 많다. 또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음악 대학과 음악과는 모두 240여 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국악과는 겨우 20여 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는 서양음악만 가르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 나라에서는 서양음악을 그냥 음악이라고 말한다. 음악대학의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는 서양음악을 가르치는 학과이고 국악을 가르치는 학과는 유독 국악과라고 칭한다. 음악대학에서도 서양음악 전공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서양음악만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들은 음악대학 학생임에도 국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혹은 국악을 무시하는 냉소주의에 빠져있다. 그러면서 대부분 스스로 (서양)음악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흔히 겪는 유일한 곤혹스러움은 유학시절 그곳 선생이 한국음악에 대하여 질문을 던질 때뿐이다. 전혀 국악에는 관심을 둔적이 없었던 학생은 우물쭈물 그 자리를 피하면 그만이다.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너는 왜 남의 나라 음악을 공부하나?”라는 질문에 자각의식을 느껴 국악에 관심을 갖는 학생은 천 명 중 한 두 명 정도일 것이다.

대학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 중에는 오히려 국악에 무지하여 비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 그가 만일 어느 학부모가 아니라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가 국악에 편견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의 무지와 편견에 의한 판단이 우리나라 음악교육 정책에 반영된다면 이 나라 교육의 암울한 미래가 우려된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근현대사는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의 시대였다. 미처 수용하기도 어려울 만큼 신문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다. 나라를 빼앗긴 전통사회의 위계도 질서도 서서히 붕괴되었다. 결과적으로 일제의 우리 민족문화 말살정책 음모로 전통음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일찍이 명치유신을 통하여 탈

아입구(脫亞入歐)라는 가치전도의 정책으로 선회한 일제는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처럼, 전통음악은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속문화도 미신으로 몰아서 중단시키는 등 전통의 총체적 훼손이 우심하였다. 이런 식으로 일제 강점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역사를 굴절시켰다.

더불어 일제는 유럽에서 15세기부터 서서히 발전된 근대 식민주의적 체제를 습득하여 우리의 자주적 사고를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민정치를 폈다. 식민지 음악교육은 이 정치의 일환이었으므로 당시는 무비판적으로 일본을 통해 도입되는 서구음악의 수용에 급급하였다. 식민주의 교육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일제의 식민주의 교육도 피식민인인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아 서구에서 온 것이면 무조건 더 훌륭하고 가치있는 것이라고 바라보게 되었다. 서구음악은 현대적이지자 유니버설한 예술로 수용되고, 반면에 자국의 고유음악은 진부한 지역문화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건국 이후에도 어수선한 정국에 음악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되었을리 만무하다. 일말의 성찰도 없는 무지한 관료와 음악교육 담당자에 의하여 일제 강점기의 음악교육을 반성없이 그대로 학교에서 시행하였으며, 이 때 학교에서 전통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교육계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학교에서 국어를 일어 대신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국악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40대 이후의 모든 한국인은 초·중등과정의 학교에서 국악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이 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는 전통음악이 수록되지 않았고, 음악선생도 그것을 알리 없었다.

국악은 초·중등 음악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전문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다. 초기의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정통 음악대학의 교육과정도 철저하게 서양음악만을 가르쳤다. 당시에는 물론 대학에 국악과도 없었고, 국악을 가르칠만한 선생도 책도 부족하였다. 교과서 집필자는 전부 서양음악 전문가였다. 지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음악과 교수가 대부분 서양음악 전공자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20세기 후반의 이 땅의 주인은 서양음악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 식민주의가 막을 내리면서 발생한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가 우리나라에 기세를 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신식민주의는 특정 민족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서구문화를 우상화하는 특징이 있다. 신식민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 마치 민족성과 정체성을 서구문화의 우상화와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 이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순적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서구의 직접적인 식민지는 아니었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서구의 의존이 심해졌다. 아직까지도 유럽의 역사책에 우리나라가 중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서구의 반(半)식민지 상태의 국가로 흔히 지적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래저래 국악은 본고장 대한민국 사회로부터도 유리되고 철저히 유폐되는 신세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서양음악 교육이 지속되어 국악은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뇌리에는 서양음악만 자리 잡았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아서, 1959년 서양음악만 교육하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국악과가 창설되었다. 바로 획기적인 우리나라 음악문화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지만 국악의 전승과 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지도자를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서울대 국악과의 성공에 힘입어서 70년대와 80년대에는 전국의 여러 대학에 국악과가 차례로 개설됨으로서 더욱 많은 연주가와 학자와 교육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여전히 서양음악이 지배하는 21세기의 우리 음악문화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국악이 회생하여 이 사회의 한 모서리에 뿌리내리고 살아 숨 쉬게 되었다. 그 결과로 지금은 국악 교육 전문가와 교수요원이 많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음악교육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 음악문화의 앞날은 어둡다. 일반 학교교육에서 서

양음악 일반도 교육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 음악선생은 서양음악 전공자로 채워져 있다. 선생들은 국악에 대하여 잘 모른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철학도 개선의 의지나 대책과 정책도 없다. 현재의 그릇된 음악교육 현상을 우려하는 관료도 거의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과정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음악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사람들이 국악의 멋과 맛을 경험하지 못하여 그 정서를 알지 못하고 국악에 냉소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다.

이제는 우리 학교음악교육에 변혁의 새바람이 필요하다.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초중등학교 음악교육의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대학의 교양수업이나 사회교육을 통한 국악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예컨대 초등학교 음악시간에는 우리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을 반반씩 가르쳐서 이중음악성(Bi-Musicality)을 갖도록 길러야 한다. 혹은 국악과 서양음악, 혹은 또 다른 세계음악까지 골고루 가르치는 다중음악성(Multi-Musicality)의 교육에도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양음악 편식교육만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 정책에서 이웃나라 중국의 학교 음악교육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중국은 2001년의 초중등학교 교육개혁 방침에 따라서 이미 2006년부터 자국의 중국음악과 아시아의 음악을 서양음악과 함께 음악시간에 삼등분하여 공평하게 가르치고 있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음악과의 교수진용은 대부분 서양음악 전공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음악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국악전공 교수의 과감한 총원이 필요하다. 교수가 있어야 학생이 배울 수 있고,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국악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대학의 음악교육이 정상화 되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음악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다. 그러면 이어서 중등학교의 음악교육도 개선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나라 사람들 모두가 바른 음악교육을 받아서 바른 우리 음악문화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사실 개인이 스스로 즐기는 음악이 무엇이든 누가 상관하겠는가? 그러나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은 적어도 서구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고 세계 모든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리하여 서구문명 뿐만 아니라 제삼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 전통문화와 음악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시아 음악도 좋아하고, 다른 세계의 음악도 편견 없이 수용하는 글로벌 교양인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음악성은 감수성이 높은 유소년기부터 형성되고, 그 취향과 습관은 청소년기에 거의 완성된다. 그러므로 음악은 언어나 음식처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어려서 먹고 익숙해진 음식이 일생의 입맛을 좌우하고, 어려서 배운 말은 그의 모국어가 되고, 어려서 배운 음악은 그의 일생의 음악언어로서 작용한다. 국악은 한식과 같이 세계에 자랑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이며, 국어와 같은 고귀한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다.

며칠 전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예술문화최고지도자과정에서 전통음악 영산회상 전곡을 감상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상령산부터 우조가락도드리까지 한시간동안 이어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의 영산회상 연주가 끝난 후 모두는 기립박수로 그 시간의 감동을 표현하였다. 청중은 대부분 국악을 처음 들어보는 인사들이었고 예술계 종사자들이었다. 이날의 실험적 영산회상 감상회에서 나는 한국인에게는 우리 음악에 조응하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